



111,100원

| 이경민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김필중<개인화물기사. 53세. 돈을 많이 밝히나, 지금껏 십원 한 장 불법으로 사용해보지 않은 순수하고 착한 성격의 인간. / 좌우명 : 벌어도 제대로 벌고 쓸때는 정승같이 쓰자.>, 김로한<해군사관생도 22세 다소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성지<주부. 49세.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이면 사족을 못쓰는 사람.>, 동료1<개인화물기사. 얼굴이 까맣고 매우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음.>, 동료2<개인화물기사. 필중을 평소 좋아하며, 형님으로 모시고 있음.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시놉시스

필중은 개인화물기사이다. 오늘도 그는 만원 한 장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그의 자랑거리는 해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아들 '로한'이다. 아침 출근 후 화물을 배정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무실에서 그는 제국토지공사의 한 직원이 개발되어질 땅의 정보를 미리 다른 이에게 주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기사를 접한다. 동료들과 시덥잖은 욕지거리를 하며 한편으로는 토지공사의 직원이 부럽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가족을 위해서 기회만 된다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큰 돈을 벌고 말리라. 돈? 그런 것쯤은 로또한번 당첨되면 끝이야. 오늘은 아들 '로한'은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오는 날이다. 집에 일찍 돌아가 화물차가 아닌 개인SUV를 타고 로한을 데리러 서울역에 간다. 서울역에서 로한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기름을 채우러 집 근처 주유소에 들른다. 치솟는 경유 값은 어느새 2155원이다. 씩씩한 마음으로 그는 주유 건을 집어 들고 주유를 마친다. 가득 주유하고 결제비용을 보니 11만1천1백 원이다. 결제하려는 찰나, 그에게 그의 신용카드가 아닌 사업자 카드가 보인다. 그 카드로 결제하면 30%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10초간 망설이더니 그의 신용카드를 꺼낸다. '내 자식이 나중에 나랏돈을 받아먹고 살 텐데, 이럴 수는 없어'하는 마음이다. 아들 로한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다. 집으로 와서 왜 그때 망설였냐고 로한이 묻는다. 필중은 사실 이러한 카드가 있는데, 나는 개인카드로 그냥 결제했다고 말한다. 로한은 내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후 여름방학을 마치고 로한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주 월요일 필중은 본인이 로또 4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첨금 수령일 필중의 동료2는 필중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권유하고, 필중은 그런 건 안한다고 말한 뒤 당첨금을 수령한다. 당첨금 액수는 11만 1천1백 원. 참 신기한 우연이다. 같은 시각 로한은 학교에서 11월 11일 해군창설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필중의 동료 2는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이력 때문에 대출을 거부당한다.

S#1 배차 대기실(컨테이너 박스) / 아침

컨테이너 박스 안 필중의 동료인 화물기사 몇몇이 낡은 29인치 브라운관 TV 앞에 모여 있다. 3인용 의자는 딱 차있고, 몇몇은 일어서 있다. TV에서는 나라의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제국토지공사의 직원이 개발되어질 땅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가로 수 억원을 챙긴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필중 :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며 신나게 흥얼거린다) 오늘은 믹스벅스구만~ 아이구 춤다 추워.

필중의 동료 1 : 아니, XX놈들!

필중 :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TV 앞 동료들에게로 다가온다) 왜 그래?

필중의 동료 2 : 아니, 형님 저기 뉴스 좀 보세요. 글썄 제국토지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개발될 땅의 정보를 넘겨 줬다네요?

필중 : (눈은 TV에 고정된 채로) 아 그래? 참 별일이야. 진짜 나쁜 놈들 이구만? 저승사자는 뭐하나 저런 놈들 안 데리고 가고 니X!

(말이 끝남과 동시에 뉴스화면으로 전환 / 교차)

아나운서 : 배씨는 제공한 정보를 대가로 현금 약 2억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일당은 총 7명으로 서초, 송파 소재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부유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시 필중에게 전환 / 교차)

(전화벨 소리)

필중 : (전화를 받는다) 네네. 아 그래요? 시화공단? 가야지 얼마데? 8만원? 아니 X팔 그거가지고 기름 값이나 나오겠냐고? 아니 안가는게 아니라... 네 잡아줘. 알았어. 태화물산으로 들어가면 되는거지? 응 철근 알았어~

필중의 동료 2 : 형님 배차 나왔어요?

필중 : 응 나 가봐야겠다.

필중의 동료 2 : 형님 근데 오늘 아들인가 뭐 진해에서 올라온다 하지 않았수?

필중 : 어어어 맞아. 나 이거만 하고 퇴근할거야.

필중의 동료 2 : 아이구야. 아주 아들이라면 형님은 아마 지옥 불까지 들어 갈 거야 안 그렇수?

필중 : (웃으며) 당연하지 임마. 하여튼 간다. (뒤돌아서서 나간다)

필중의 동료 2 : 네 형님. 안전운전 하세요.

(나가면서 기름값에 대한 뉴스 음성 2155원 최고치 기록...)

배 : 그러면 오후에 맞춰야겠네요.

S#2 필중의 차 / 아침, 차 안

필중 : (차에 시동을 걸며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오며 흥얼거린다) 아이고~ 가볼까나. 인생 뭐 있나~♫ 돈이 최고야. (흥얼거림 끝)
에이, 나도 돈만 벌 수 있으면 뭘 못할까. 부럽네 그 사람 참 그래도 몇 년 썩고 나오면 부자 되어 있을 거 아냐? 모르겠다. 이번 주 로또나 되면 좋겠네. 에라이 로또 1등만 돼봐. 이 짓도 끝이다 끝이야. (전화벨,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응 아들 어디야? 몇 시에 온다고? 응, 가야지. 알았어. 서울역으로 갈게 그러면 그래. 조심히 와. 응.
(화면 전환되어 차 대시보드 위 필중과 로한이 같이 찍은 해군사관학교 입학식 사진)

S#3 서울역 주차장 / 저녁

(필중은 웬지 모르게 신나는 표정, 서울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연신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다)
필중 : 6시 20분 도착이라고 했나?
(그는 그의 자가용에서 나오면서 웃기를 여민다)
필중 : 아이 씨 왜 이렇게 추워 또?
(“달그락” 서울역 주차장에서 대합실로 들어가려는 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료 캔이 밟힌다)
필중 : 뭐야 이거 캔? 누가 여기다가 이런 쓰레기를 버린거야?
(줍는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쓰레기통에 캔을 넣고 손을 툄 뒤 대합실로 들어간다)

S#4 서울역 대합실 /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방송 / 필중은 두리번두리번 누군가를 찾고 있다)
방송 : 지금 창원중앙에서 출발하여 6시20분 서울역 정차하는 기차가 타는곳 12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필중은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필중 : 12번이라고 했지?

S#5 서울역 12번 승강장 / 저녁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 KTX산천 211번, 기차는 서서히 멈추고 필중은 기차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보고 있다. 기차가 완전히 멈추고 필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M 오른쪽으로 떨어진 기차출입문에서 해군사관학교 정복을 입은 로한 이 내린다)
필중 : (로한을 확인하고 손을 흔들며) 아들!
로한 : (살짝 놀라며) 어 아버지 언제 왔어요?
필중 : 얼마 안됐어. 가자 빨리.
로한 : 네, 그나저나 서울은 춥네요 진짜.

필중 : 날씨는 추워도 집에 오니까 좋지?
로한 : 당연하죠.

S#6 서울역 주차장 / 저녁

(필중과 로한은 차에 탑승한다)
로한 : (백미러에 달려있는 처음 보는 달마부적을 쳐다보며) 이건 뭐예요?
필중 : (안전벨트 착용하며) 아 그거? 돈이 벼락처럼 생기는 부적.
로한 :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필중 : 없는 것보단 낫잖아 (하하 웃는다)
로한 : (고개를 저으며) 에휴...
(시동을 걸고 자동차는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S#7 필중의 자가용(SUV) / 저녁, 차안

(필중의 차는 운행 중이다)
필중 : 아들 근데 그 사관학교에서는 뭘 배우냐?
로한 : 아니 뭐 이것저것... 그냥 장교로서 마음가짐 같은 것들 배워요.
필중 :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한가?
로한 : 필요하니까 배우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필중 : 뭘?
로한 : 아니 그렇잖아요. 청렴이니 허위를 버리니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러기 쉽지 않다는거.
필중 : (묵묵히 듣고 있다)
로한 : (창밖을 바라보며) 그냥... 잘 모르겠네요.
(정적 / 네비게이션은 어느덧 목적지 10분 남았다고 알려주며 정적을 깬다)
필중 : 어 집 가기 전에 기름 넣어야겠다. 기름이 얼마 없네?
로한 : (핸드폰 중이나 잠시 끄며) 아 그래요? 내가 검색해볼게요 그럼 가장 싼 곳...
필중 : (말을 끊으며) 아냐 됐어.
로한 : ?
필중 : 여기다. 여기가 집에서 제일 가깝고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 여기서 넣지 뭐
(화면은 경유 값 전광판과 들어가는 필중의 차를 같이 보여준다. 경유 값은 2155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S#8 주유소 / 밤

필중 : (주유기 앞에 주차 후 차에서 내리며) 으흐. 얼마나. 히익! (놀란다.) 2155원? 아니 이놈의 기름 값은 맨날 오르냐?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종과 양을 선택하고 주유를 한다. 주유 끝 결제는….

(지갑을 본다. 사업자 카드가 꽂혀있고 아래에는 필중의 신용카드가 같이 꽂혀있다. 사업자 카드를 집는 로한. 꽂기 직전 무언가 생각한다)

필중 : (마음의 소리) 에이 아들이 공직자가 될 건데… 이거 얼마 한다고? 3만원 차이잖아. 쪽팔린 짓 하지말자. (다시 개인 신용카드로 손이 가 결국 주유기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필중 주유기에서 나오는 음성 11만 1천 1백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와 11만 1천 1백 원? 진짜 X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비싸! 아으!

(필중은 다시 차에 탄다.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멀어져가는 차를 동시에 보여준다)

S#9 필중의 집 / 밤

(필중의 아내는 늦은 저녁을 준비 중이다. 익숙한 솜씨로 갖은 반찬들을 차려놓고 무엇인가 계속 요리를 하고 있다. 이때 들리는 익숙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필중의 아내는 현관으로 이동한다.)

필중의 아내 : (환하게 웃으며) 우리아들 왔어? (로한을 꺼안는다)

로한 : 엄마 잘 있었지?

필중의 아내 : (로한을 보며) 그럼 엄마가 아들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해냈지.

로한 : 오 오늘 저녁 미쳤네!

필중 : (실망한 목소리로) 아니 나도 좋아하는데….

필중의 아내 : 자기는 술이나 먹지말어~ (면박준다)

필중 : (시무룩한 목소리로) 네….

(필중과 로한 그리고 필중의 아내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S#10 필중의 집 거실(식사중) / 밤

(필중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로한은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TV는 뉴스가 나온다.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기사, 아침에 나왔던 제국토지공사 관련 뉴스)

필중 : 저 기사. 또 나오네?

로한 : 아 저거 저사람 뭐라더라 원래 집이 가난해서 돈에 대한 그 욕망? 그렇게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필중 : 그래?

필중의 아내 : (필중을 보며) 뭔데?

필중 : (다시 밥을 먹으며 우물우물) 아니 무슨 개발될 땅의 정보를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뭐라나.

필중의 아내 : (어이없다는 듯이 약간 성을 내며) 참나. 나라도 저렇게 하겠네. 이 시간에도 돈 많은 놈들은 수십억 수백억 빼먹

고 있는데….

필중 : (말을 끊으며) 에헤이~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하네.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필중의 아내 : 참나. 그래 나는 뭐 우리아들 불고기 해줄 돈만 있으면 돼~ 아들 많이 먹어.

(로한은 이런 필중과 필중의 아내 대화가 익숙한 듯 피식 웃는다)

로한 : (식사를 하며) 아버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필중 : 어? 뭔데?

로한 : 아버지 아까 기름 넣을 때 뭘 망설인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시던데?

필중 : 아아. 그거? 아니 나 사업자 카드 화물차 기름 넣는거 있잖아. 그걸로 결제하면 경우는 어차피 화물차에도 넣으니까 티 안 나거든. 그걸로 결제하면 30%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근데 그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로한 : (놀란 표정으로) 왜요? 돈 아껴야죠?

필중 : 아냐 그래도 아버지는 쪽팔리게 남에게 부끄러운 짓은 안하고 살았어. 근데 니가 나중에 해군장교가 될 텐데, 이런 사소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

로한 : (살짝 웃으며) 음… 그런가….

필중 : 로한아 너도 나중에 혹여나 큰돈을 만지게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절대로 남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 돈은 없어도 돼. 안 쓰면 그만이야 근데 쪽팔림은 영원히 남아. 그것만은 절대 하지 마.

필중의 아내 : 아이구야 이양반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야? 우리 아들은堂堂하게 살아 괜찮아.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堂堂하게 살게 해줄게.

로한 : 네~堂堂하게 삽시다!堂堂하게 밥 먹고 치킨이나 한 마리?

필중, 필중의 아내 : 좋지!

(필중과 필중의 아내 로한이 식탁에서 하하 웃으면서 F.O.)

S#11 서울역 12번 승강장 / 낮

(F.I.)

(사람이 많은 서울역 승강장 가운데 로한과 필중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로한 : 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방학이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네요.

필중 : 그래. 조심히 내려가고 방에 들어가서 시간나면 전화해.

로한 : 네. 들어가세요.

(로한은 KTX를 탄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로한 : (두리번거리며) 12의A 12의A… 여기다.

(로한은 자신의 자리에 앉고 창 밖에 있는 필중을 본다. 필중은 손을 흔들며 로한에게 잘 가라고 한다. 로한은 전화한다고 손짓하며 기차는 출발한다.)

(기차가 완전히 떠난 후)

필중 : 아이구 춥다.

필중 : 아이구 출다.

(필중은 종종걸음으로 승강장에서 빠져나와 대합실로 이동한다.)

S#12 주차장, 필중의 자가용 안 / 아침

이후 필중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에 걸어가 탑승한다.

필중 : (출발 전 무언가 생각난 듯이) 아 맞다. 이번 주 로또 어떻게 됐지?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찾아보는 필중 / 핸드폰 화면과 필중의 얼굴이 교차로 나온다.) 음... 오! 4등? 괜찮은데 4개나 맞았네! 오늘 재수가 좋은데?

(F.O.)

S#13 배차 대기실(컨테이너 박스) / 아침

(F.I.)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둑을 두거나 티비 앞에 모여 얘기하거나 사뭇 정돈된 듯 하면서 어지럽게 대기실 안에서 자신의 배차를 기다리고 있다)

필중의 동료 2 : (반갑게 인사하며) 어 형님 왔어요?

필중 : 응. 야 나 로또 4등 됐다

필중의 동료 2 : (웃으며) 에이 그거 얼마 한다고. 형님 그러지 말고 나랑 사다리하나 탑시다.

필중 : (의아하게) 사다리?

필중의 동료 2 : 이거 봐요.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인데, 이게 50%확률로 운만 좋으면 지금 당장 100만원도 먹어요...

필중 : (말을 끊으며) 아이 야! 이런 거 할 시간에 마누라한테 십 원 한장이라도 더 갖다 줘.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 거야. 액수가 커지면 그만큼

필중의 동료 2 :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까지 김필중 의원의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중 : 야 너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취미로 즐겨

필중의 동료 2 : 네네 알겠습니다.

필중 : 여튼 간에 너 제수씨 속 썩이지 마라. 간다.

필중의 동료 2 : 어디가요?

필중 : (로또용지를 흔들며) 이거 바꾸러. 수고해라

(필중은 뒤돌아서 배차 대기실을 나간다)

필중의 동료 2 : (소리친다) 형님 이거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내가 추천인 해드릴게!

필중 : (혼잣말로) 에이 백날 해봐라 불법은 불법이야. 절대 안돼.

(걸어가는 필중의 뒷모습)

S#14 로또 판매점 / 아침

(로또 판매점 가운데에는 석유난로가 있다. 판매점 사장은 구석에 있는 작은 티비를 보며 굴을 먹고 있다)

판매점 사장 : 어 필중이 어서와.

필중 :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거예요? (난롯가로 간 후 손을 비비며 연신 추운티를 내고 있다)

판매점 사장 : 내일이 소한이래. 원래 대한이보단 소한이가 더 춥지 않은가? (혼자 웃음)

필중 : (사장에게 다가가며) 농담도. 사장님 이거 4등 당첨이요. 얼마예요 근데?

판매점 사장 : 4등? 잠깐만 (인터넷을 뒤적이며) 이야 오늘 당첨액수 좋다. 여기 당첨금.

필중 : 얼마데요? (돈을 받고 세면서 판매점을 나간다) 여튼 가볼게요.

판매점 사장 : 어 조심히 가~ 로또도 한 장사고~

S#15 로또 판매점 주차장 필중의 화물차 안 / 아침

(필중은 당첨금을 화물차에 올라 탄 후 세고 있다.)

필중 : 보자 10만... 11만 1천 뭐야 백 원은? 11만 1천 1백 원이네. 10이 많네. 잠깐만... 뭔가 익숙한 숫잔데? (의아함을 나타내며 시동을 건다.)

(F.O.)

S#16 해군사관학교 대강의실 / 아침

(F.I.)

(화면 전면에 PPT 슬라이드가 빔 프로젝터로 띄워져 있고, 청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는 청렴전문 강사)

강사 : 자 여러분. 여기 해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오늘 사관생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선비정신'으로 살아왔다고 하죠. 선비정신이란 깨끗한 지조와 기개, 불요불굴의 정신력, 청정한 마음가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군의 초대 참모총장이시자 한국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께서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창설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로한 : ...11월 11일입니다.

강사 : 네. 11월 11일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945년 11월 11일이죠. 그럼 왜 11월 11일에 창설하셨을까요?

(조용한 강의실. 백 명 남짓 되는 생도들이 조용하다)

강사 : 그 이유는 선비정신을 강조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비 사(士)의 파자가 열, 하나 십, 일이죠? 청렴한 선비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 손원일 제독은...

(F.O.)

S#17 해군사관학교 기숙사 / 밤

(F.I.)

(불꺼진 기숙사에서 스탠트 불빛에 의지하며 로한은 기숙사에서 손원일 제독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로한 : (기지개를 켜며) 아구구~ 졸려. 이제 슬슬 자야겠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

로한 : (핸드폰을 보며) 뭐지? 전화는 아닌데?

(필중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 / 다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필중 : 로한아 아빰데, 혹시 용돈 필요해?

로한 : 응? 갑자기?

필중 : 응. 오늘 로또 4등 됐거든~

로한 : (살짝 웃으며) 오 얼마인데?

필중 : 보내줄게 용돈 해

로한 : 땡큐~

(로한은 이제 잠에 들기 위해 침대로 들어간다. 이때 울리는 진동소리)

로한 : 얼마지?

(핸드폰 화면 상단에 나타난 액수 111,100원 입금되었습니다)

(F.O.)

S#18 은행

(F.I.)

(필중의 동료 2는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절박한 표정)

필중의 동료 2 : 아니 글썸. 왜 내가 대출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은행 창구 직원 : 고객님의서는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으세요. 그런 분께 저희는 대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필중의 동료 2 : 글썸 그건 옛날에... 어휴.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부족한 전세금을 못 준다구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는 다니까?

은행 창구 직원 : 고객님의. 죄송한데, 저희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방문 하시는게...

필중의 동료 2 : 아니 X팔! 야 여기 지점장 나오라고 해봐.

(필중은 은행에서 소란을 일으킨다. 보안직원들이 필중의 양팔을 포박하고 강제로 은행 밖으로 끌어낸다)

(F.O.)